

[정 정 대 비 표]

■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

편 드 명	BNK지속가능ESG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
정 정 서 류	(간이)투자설명서
정 정 사 유	-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-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효 력 발 생 일	2024년 05월 31일

■ 정정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6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아니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아니합니다.	6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아니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
[요약정보]			
표지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<u>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</u>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(생략)	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(현행과 동일)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5.20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5.20 기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-	- 2024.05.20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자 유의사항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-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	-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

		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기 바랍니다.
--	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6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며</u> 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.</u>	6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 아니며</u> 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습니다.</u>

[요약정보]

표지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이며, (생략)	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이며, (현행과 동일)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5.20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5.20 기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-	- 2024.05.20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자 유의사항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-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-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-	- 2024.05.31: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,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,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,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-	-	- 2024.05.20 기준으로 업데이트
8. 집합투자기구의	오기 정정	가. 투자 대상	가. 투자 대상

투자대상		<p>주1)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재산 자산 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- 위의 ①~⑤의 ---(생략)--- 합니다. 1. ~ 2. (생략)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 4. ~ 5. (생략)</p>	<p>주1)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재산 자산 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- 위의 ①~⑤의 ---(생략)--- 합니다. 1. ~ 2. (현행과 동일)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 4. ~ 5. (현행과 동일)</p>						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,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<p>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아니하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<u>아니합니다</u>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<u>아니합니다</u>. (생략) 가. ~ 다. (생략)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<정정 전></p>	<p>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아니하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<u>않습니다</u>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<u>아니합니다</u>. (현행과 동일) 가. ~ 다. (현행과 동일)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<정정 후></p>						
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<p>가. (생략) 나. 환매 (1) ~ (8) (생략) (9)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<신설></p>	<p>가. (현행과 동일) 나. 환매 (1) ~ (8) (현행과 동일) (9)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66 1514 1513 1697"> <tr> <td>중도환매 불가</td> <td>중도환매 시 비용 발생</td> <td>중도환매 허용</td> </tr> <tr> <td>-</td> <td>-</td> <td>○</td> </tr> </table>	중도환매 불가	중도환매 시 비용 발생	중도환매 허용	-	-	○
중도환매 불가	중도환매 시 비용 발생	중도환매 허용							
-	-	○						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<p>가. (생략)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</p>	<p>가. (현행과 동일)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p>						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<p>가. (생략) 나. 과세 (1) ~ (3) (생략)</p>	<p>가. (현행과 동일) 나. 과세 (1) ~ (3) (현행과 동일)</p>						

		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Class C-P, C-Pe, S-P 및 J-Pe 가입자 - 분리과세한도: <u>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은 제외)</u> (5) (생략)	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Class C-P, C-Pe, S-P 및 J-Pe 가입자 - 분리과세한도: <u>1,500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은 제외)</u> <u>연금소득이 1,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의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 (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)</u> (5) (현행과 동일)
--	--	--	---
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-	최근 결산기 재무 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5.20 기준으로 업데이트
---	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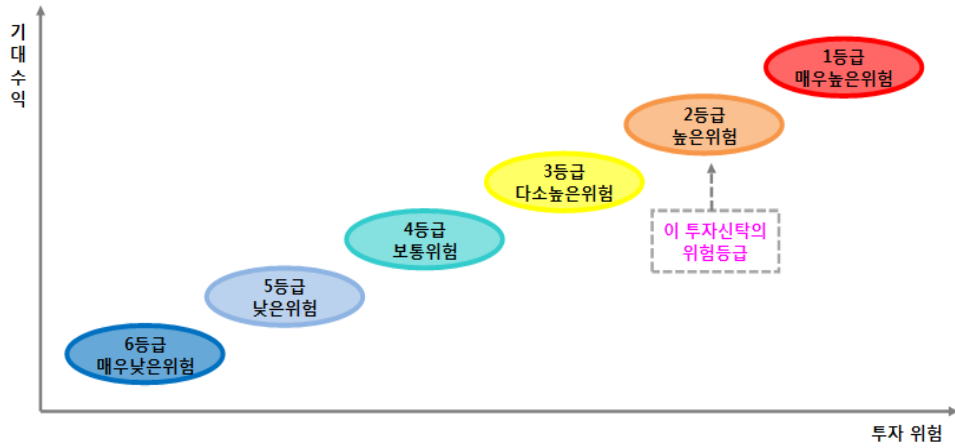
제4부.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이해관계인 현황 업데이트	- 가. 회사개요(2024.05.20 기준) - 이해관계인: <u>신한은행(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30% 이상을 보관·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)</u>	- 2024.05.20 기준으로 업데이트 가. 회사개요(2024.05.20 기준) - 이해관계인: <u>없음(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30% 이상을 보관·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)</u>
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채권평가회사 주소 변경	가. ~ 다. (생략) 라. 채권평가회사 (1) 회사의 개요 - 회사명: 한국자산평가 - 주소 및 연락처: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☎ 02-2251-1300 (이하 생략)	가. ~ 다. (현행과 동일) 라. 채권평가회사 (1) 회사의 개요 - 회사명: 한국자산평가 - 주소 및 연락처: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☎ 02-2251-1300 (이하 현행과 동일)

<정정 전>

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

-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미경과한 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며 시장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하는 상품으로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2등급(높은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
-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으로 인한 투자원본손실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



※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설정 후 3년이 경과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 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[BNK자산운용 투자위험 등급분류기준 - 설정 후 3년 미경과 시]

위험등급		분류기준
1등급	매우 높은 위험	-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- 최대손실률이 20%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-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2등급	높은 위험	- 고위험자산에 8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-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3등급	다소 높은 위험	- 고위험자산에 80%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- 최대손실률이 20%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-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4등급	보통 위험	- 고위험자산에 50%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- 중위험자산에 최소 6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-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5등급	낮은 위험	- 저위험자산에 최소 6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-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-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6등급	매우 낮은 위험	-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 -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-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
- "고위험자산"은 주식, 상품, REITs, 투기등급채권(BB+등급 이하),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
- "중위험자산"은 채권(BBB- 등급 이상), CP(A3등급 이상),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
- "저위험자산"은 국공채, 지방채, 회사채(A-등급 이상), CP(A2-등급 이상),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
-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·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
-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·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

[위험등급 분류기준 - 설정 후 3년 경과 시]

위험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
	매우높은위험	높은위험	다소높은위험	보통위험	낮은위험	매우낮은위험
수익률 변동성 (표준편차)	25%초과	25%이하	15%이하	10%이하	5%이하	0.5%이하

* 수익률 변동성(표준편차) : 일정 기간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,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 값을 계산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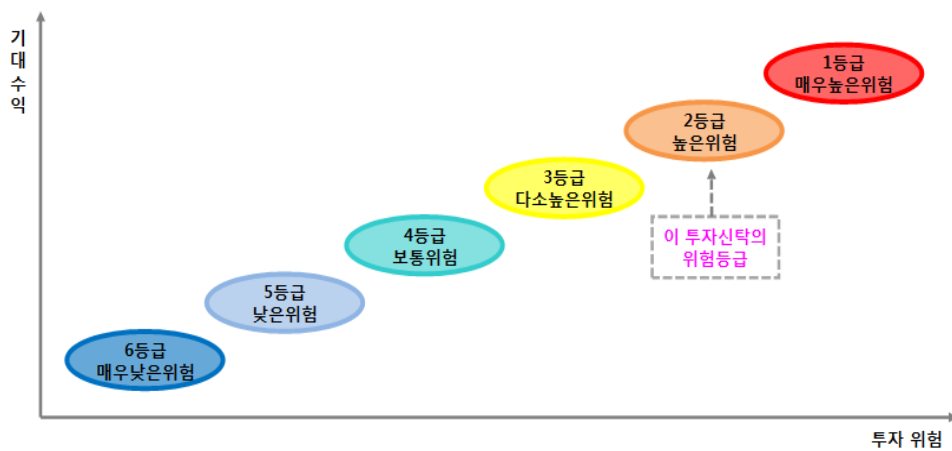
는 지표로 사용하였습니다. 수익률 변동성(표준편차) 값이 클수록 미래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투자신탁의 위험이 커지게 됨을 의미합니다.

※ 이 투자위험 등급분류는 BNK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이며,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.

<정정 후>

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

-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며 시장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하는 상품으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)은 **33.5737%**이며,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**2등급(높은 위험)**으로 분류됩니다. (최근결산일 : 2024.4.20)
-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으로 인한 투자원본손실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



※ 상기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추후 이 투자신탁의 결산시마다 재측정하게 되며,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[수익률 변동성 기준(97.5% Var 모형 사용)]

위험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
	매우높은위험	높은위험	다소높은위험	보통위험	낮은위험	매우낮은위험
97.5% VaR	50%초과	50%이하	30%이하	20%이하	10%이하	1%이하

- *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.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($\sqrt{250}$)를 곱해 산출
- * 수익률 변동성 기준 :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 이 위험등급은 매 결산 시마다 재산정하며,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이 투자위험 등급분류는 BNK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이며,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.

<끝>.